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3)

판문점이 전하는 송고한 통일이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1970년대에 조국통일은 참말로 민족의 랑심이 가리키는 애국위업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셨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하여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 복잡하고 엄혹한 정세가 극단으로 치달던 주제 61(1972)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판문점을 찾으신다.

판문점,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겨레가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과 반통일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가 응집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언제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칠지 모르는 세계 최대

의 열점지역이다. 바로 이 위험천만한 곳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것이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북남적십자재비회담이 진행되고있었다. 판문각에서 회담준비를 하고 있는 공화국의 대표단성원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담준비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국통일3대 원칙이 구현된 7.4북남공동성명의 요구에 맞게 회담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또한 판문점로에서 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조국을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은 날이 없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68(1979)년 10월 어느날에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국 하나의 조선인가 아니면 두개의 조선인가 하는 문제를 귀찮다고 하시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을 생각하고있다고,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보면 안되고, 조선을 하나로 합쳐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리면서 나는 어 린시절 38°선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분열의 장벽을 일 시적인것으로 생각했지 결코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통일위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온 민족이 예

국의 마음으로 단합하면 능히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나라의 통일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언젠가 동해안일대를 현지도하시면서는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며 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아침에 깨어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통일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것이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은 탁월한 사상과 평도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본사기자 주일 봉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설명철을 맞게 된다. 5개년계획수행을 위하여 너무나 애국의 성실한 맘을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 속대 설명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자못 크고 온 나라는 민족적색채가 짙은 명절분위기로 흥성이였다.

이러한 이채로운 설맞이풍경은 공화국에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 것을 가슴뿌듯이 실감케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시대와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다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제78(1989)년 1월 어느날 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고 하시며 음력설을 크게 쇠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또한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철을 잘 쇠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면서 설을 쇠어도 우리 식으로 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민족전통에는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넋이 숨배어있고, 송고한 민족애와 조국을 지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풍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

서도 나라난다고 하시며 우리의 민족옷인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고, 특히 녀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하다고,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를 강하게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해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으며 진행되는 전국조선옷전시회에도 민족성을 지키고 더욱 빛내어

맛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적합취가 절제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교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전통의학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민족전통계승과 관련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전통을 잃어 버려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에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경에는 원수님께서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교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바로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원산동쪽 150mile 해상에서 그 태풍의 중심선에 들게 되었다. 배에는 조국을 방문하는 수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배의 상태를 알려라는 조국의 무전을 받은 《삼지연》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절을 보내어왔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문이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국의 일군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일군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로 조난당한 배에 사람은 몇명 있다고 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고 물으시고 배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곧 취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리면서 중요한 것은 배자체에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배에 연락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장군님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그리니 죽음이 경각에 달하였던 조난선에서 이 감격의 소식을 받아안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비행기와 대형진배, 함선들을 맞이하게 된 동포청년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배안의 물을 퍼내는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밤은 깊었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건강이 넘어져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이국땅에서 조국을 찾아오는 동무들이 도중을 폭풍을 만나 고통하는데 어떻게 쉬겠는가. 그들이 조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뜰수 없다고 하시며

외국의 저명한 녀류작가의 관복

주제69(198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도이쉴란드의 저명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루이저 린저가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고나서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몸은 건강한가, 가족들은 다 잘 있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일일이 물으시면서 아직까지 이곳 기우에 적응되지 않았겠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와 담화를 하시면서 우리 나라도 귀국과 같이 분렬되어있다고, 민족의 분렬은 그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민족적비극이라고 하시었다.

게속하여 그이께서는 조선로동

반세기전에 세상을 떠났어도

주제86(1997)년 6월 어느날이 또 그런 일에 대해 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해방 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어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친 려운형선생의 서거일을 기억해주시고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추모회를 열도록 세심히 보살피주셨던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길이 빛내여주시며

을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추동하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민족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언제인가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시된 삼피장저고리와 치마를 비롯한 조선옷들을 보시면서 조선치마저고리는 교신이 보일락말락하게 입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면서 민족성은 풍속이나 고유한 레의도덕에서도 나타나지만 옷차림에

나가지도록 하는데 마음쓰신 그이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여었다.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전통은 경에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경에는 원수님께서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교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적합취가 절제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교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전통의학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민족전통계승과 관련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전통을 잃어 버려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에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경에는 원수님께서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교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바로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원산동쪽 150mile 해상에서 그 태풍의 중심선에 들게 되었다. 배에는 조국을 방문하는 수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배의 상태를 알려라는 조국의 무전을 받은 《삼지연》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절을 보내어왔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문이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국의 일군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일군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풍랑바람을 날바다우에 펼쳐진 사랑의 구조작전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그날 태평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하여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1천여명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고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지점인 남조선 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향방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던것이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원산동쪽 150mile 해상에서 그 태풍의 중심선에 들게 되었다. 배에는 조국을 방문하는 수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배의 상태를 알려라는 조국의 무전을 받은 《삼지연》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절을 보내어왔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문이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국의 일군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일군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로 조난당한 배에 사람은 몇명 있다고 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고 물으시고 배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곧 취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리면서 중요한 것은 배자체에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배에 연락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장군님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그리니 죽음이 경각에 달하였던 조난선에서 이 감격의 소식을 받아안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비행기와 대형진배, 함선들을 맞이하게 된 동포청년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배안의 물을 퍼내는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밤은 깊었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건강이 넘어져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이국땅에서 조국을 찾아오는 동무들이 도중을 폭풍을 만나 고통하는데 어떻게 쉬겠는가. 그들이 조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뜰수 없다고 하시며

서 구조전투를 계속 지휘하시었다.

《삼지연》호가 위대한 장군님의 지시대로 풍랑을 이겨내면서 인내성있게 조국을 향해 떠날때 다가오있던 배를 어느 항구에 대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거리로 보아 입항하기 편리한 김책부두에는 이미 술한 배들이 정박해있었고 그렇다고 원산부두로 가려면 아직도 많은 거리를 항행해야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부두에 있는 큰 배들을 다른쪽으로 빼도록 하고 《삼지연》호를 부두에 대도록 하여야 한다고, 배내전을 잘하여 김책부두에 사고없이 들이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이리하여 27일 새벽 4시, 온밤 엄혹한 자연의 횡포를 용감히 이겨내고 끝끝내 조국해안에 들이선 《삼지연》호는 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김책항으로 들어왔다.

《삼지연》호의 무사입항, 실로 그것은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안아주시실수 있는 기적였고 사랑의 전설이였다.

본사기자

바로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원산동쪽 150mile 해상에서 그 태풍의 중심선에 들게 되었다. 배에는 조국을 방문하는 수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배의 상태를 알려라는 조국의 무전을 받은 《삼지연》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절을 보내어왔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문이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국의 일군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일군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

인민에게 하시는 인사

예로부터 인사는 아래사람이 위사람에게 먼저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그러나 경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다.

새해의 첫아침마다 다심하신 음성으로, 뜨거운 정이 넘치는 친필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들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란다시며 정깊은 새해인사를 먼저 보내신다.

어제 그뿐이였던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기념하는 열병식장에서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무병무탈해 주셔서 고맙다고 눈물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령도자의 뜨거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인사를 받은 조선인민을 두고 세인은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령도자는 인민우에 존재하는 사람

이지만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인민에게 자신을 두시고 인민을 자신의 하늘로 여기신다. 새해의 아침에 온 나라 가정에만복이 깃들기를 념원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축복의 인사는 사실상 새해에도 온 나라 가정에만복을 꾀워주시려는 그이의 헌신의 맹약이다.》

《김정은령도자가 인민에게 바라는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민이 무병무탈하게 살았으면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락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것이다. 인민이 안녕하고 행복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런 령도자, 그분은 령도자라기보다 인민들의 친아버지이고 친어머니이다.》

로병들에게 보내신 인사

공화국에서 전송절에 진행되는 전국로병대회들도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전하여주고 있다.

경에는 원수님께서 대회장과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어 언제나 로병들에게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곤 하신다.

불굴의 전송세대에게 보내시는 그이의 인사를 받으며 백발의 늙은이들은 어련에마냥 그이품에 안겨들고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눈시울을 적신다.

본사기자 리경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나라의 정전로병은 인터넷에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펴 려하였다.

《나도 전전로병이다. 조국을 위하여 충충을 아낌없이 바쳐왔지만 우리가 지켜싸 온 나라는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지고 그대의 조국수호정신은 후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전송세대에게 령도자가 보내는 저 경의는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남조선에서 위인칭송도서 발행

최근 남조선에서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제1권)가 출판된 소식을 남조선 언론 《민플러스》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령도 10년사를 소개한 책으로서 크게 4개 부분 즉 제1권 1, 2부와 제2권 3, 4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권은 앞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서의 서론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공화국에서 김정은시대가 개막된것은 력사의 필연인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공화국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조선 같은면 3일도 버

리기 어려웠던 이 10년동안 공화국은 자력갱생전략으로 《상강전해》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공화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력사적의미가 무엇인가를 해명하여 민족의 평화와 화해, 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이 도서를 집필하였다는데 대해 밝히었다고 한다.

이어 제1권 《김정은시대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서는 김정은시대가 어떤 시대적, 력사적조건과 경제적도에서 시작하였는가에 대해 서술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부에서는 19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극복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제2부에

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되시는 과정과 그의 철학과 사상, 정치로선과 정책들,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서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제2부에서 김정은시대 10년 동안 자세히 살펴보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뀌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 안타까웠다고 전하였다.

제2권(3부와 4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제1권)가 출판된 소식을 남조선 언론 《민플러스》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령도 10년사를 소개한 책으로서 크게 4개 부분 즉 제1권 1, 2부와 제2권 3, 4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권은 앞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서의 서론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공화국에서 김정은시대가 개막된것은 력사의 필연인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공화국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조선 같은면 3일도 버

